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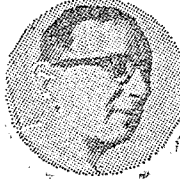
1977年度 노벨 物理·化學賞 受賞者 發表

科學街「뉴우스」

物理



◇벤 로어博士



◇앤더스博士



◇도 트博士

化學



◇드리고기네博士

벤 로어 교수는 26년에 발표된 「양자원리와 핵스펙트럼」 30년의 「帶磁學 이론」을 발표하고 32년의 「전자 자기 작용 이론」 등을 발표 「現代磁氣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磁氣學의 권위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26년에 발표된 「양자원리와 핵스펙트럼」 30년의 「帶磁學 이론」을 발표하고 32년의 「전자 자기 작용 이론」 등을 발표 「現代磁氣學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磁氣學의 권위자이다.

1969년에 교단에서 은퇴했으나 하버드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수학과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하버드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필립·W·앤더스(美 54세) 1923년 인디애나 폴리스 태생으로 1949년 하버드대학 벤슬레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49년 6월 벨電話研究所에 들어가 물리연구과를 이끌면서 주로 固體物理學부분에 주력해 왔으며, 磁氣의 불균형시스템의 전기적응계의 기초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앤더스는 교수인 磁氣氣泡기억장치의發明은 새로운 전자장치와 컴퓨터의 기억장치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되고 있다.

1977년도 노벨物理學賞은 美國 하버드 대학의 필립·W·앤더스博士, 그리고 英國 케임브리지 대학의 네빌·F·도트教授 등 세명이 공동 수상하게 되었다.

필립·W·앤더스(美 54세) 1923년 인디애나 폴리스 태생으로 1949년 하버드대학 벤슬레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49년 6월 벨電話研究所에 들어가 물리연구과를 이끌면서 주로 固體物理學부분에 주력해 왔으며, 磁氣의 불균형시스템의 전기적응계의 기초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앤더스는 교수인 磁氣氣泡기억장치의發明은 새로운 전자장치와 컴퓨터의 기억장치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되고 있다.

物理 磁氣 電子構造 이론에 業績

◇존·H·벤슬레博士 (美 78세)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네빌·F·도트教授 (英 72세)

1905년 영국 태생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브리스톨대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으며 44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물리학과 이카덴디시언수사를 맡아 이 때까지 고체물리학 특히 고체물질의 전자구조에 관해 연구를 계속해 왔다. 도트 교수는 자신이 연구한 몇가지 물질현상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명명하기도 했는데 특히 도트教授의 이름을 붙인 「도트轉移란 현상」은 금속이 투명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전자전도체로부터 절연체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지난 62년에는 나이트작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케임브리지대학의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다.

化學

熱力學분야 공헌

◇일리아 드리고기네教授

금년도 노벨化學賞은 벨기에 브르셀대학의 일리아 드리고기네教授(벨기에·6)에게 수여되고 있다. 스웨덴왕립과학원은 이제까지 모든 자연발생적인 과정에는 무질서상태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피졌으나 에디지가 의부로부터 공급되는 몇몇 경우의 예외는 소위 「정돈된 질서상태」가 증가

될 수 있다는 熱力學에 있어서의 「무질서」의 질서」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化學賞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상금은 70만 크로네가 수여된다.

드리고기네 교수는 전기역학자로서의 성질이 서로 연관되는 과정 및 이에 따른 물질의 변화와 관련된 비평형 열역학연구로 이제까지 한정 연구되어 오던 熱力學의 정교조와는 달리 비평형체계의까지 열역학을 확시시키는 데 공헌했다.

드리고기네교수는 1917년 소련에서 태어나 12세 때 벨기에로 이주했으며 45년 브르셀 자유대학에서 化學博士학위를 받고 47년부터는 도쿄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는 리스대학의 통계기술 및 열역학센터 소장직도 맡고 있다.

大韓金屬學會長 金東勳 박사 渡獨

大韓金屬學會 金東勳 회장 은 부인 정부부 초장으로 지난 10월 14일 우리 나라를 출국, 독일의 Max-Planck 金屬研究所를 비롯한 金屬分野의 공장과 각 대학을 시찰하고 오는 11월 5일 韓國학회의 정이다.